오 영 제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앞으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올해로 과총과 KIST의 설립 5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와 정부는 2016년을 "과학기술 50년의 해"로 정하였는데, 고분자학회도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내 과학계 역사에 버금가는 짧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분자학회는 그동안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 소재산업의 뒷받침이 되어와 무기물 소재와 관련된 한국세라믹학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76년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이었지만 고분자를 연구하는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모여 학회를 조직하면서 우리나라 고분자 분야의 학문 및 산업발전 태동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고분자 역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 모두 한국고분자학회에 속해 있는 여러 과학기술자들의 노력 덕분임은 물론 한편으로는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한 곳으로 모아 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분자 과학 및 기술은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3억 톤 이상의 합성고분자가 생산되고 있으며 화학산업의 약 40% 정도를 고분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분자산업은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재료공학, 물리, 화학, 전자공학, 의학, 생명공학 분야에까지 고분자는 매우 큰 비중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많은 고분자가 다른 소재 특히, 세라믹 재료와 더불어 하이브리드화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양화 시키거나 또는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흡수성 고분자, 유기고분자 면발광체, 2차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생체적합성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 섬유, 필름, 투명 고내열 유기고분자, 고분자 단결정, 3D 프린팅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고분자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분자 전문가들께서도 우리 세라미스트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발현하는 융·복합 재료를 연구하여 우리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환경 또한 더욱 정화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신기술 강좌 및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고분자학회가 세계의 우수 학회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학회 임원 및 회원들 모두에게 이번 40주년 기념을 거듭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오 영 제**